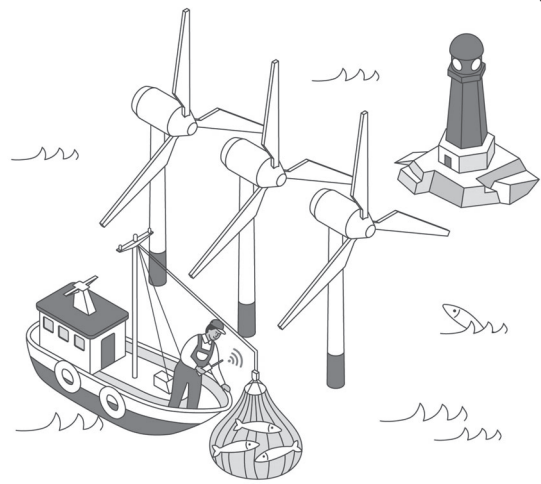


고흥군,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본격

2GW 규모 정부 계획 입지 선정
신재생에너지 전력수급 과제 등
군민 설명회…에너지 연금 조달
“인구 10만 달성 기폭제 계기로”



전라남도 고흥군이 최근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30년 고흥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해상풍력 단지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6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를 통해 국비 14억5000만원과 군비 25억원 등 총사업비 39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최대 2GW 규모의 신규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담하는 이번 사업은 정부와 군이 협력해 해상풍력 단지의 환경성, 경제성,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단지개발을 목표로 한다.

전남녹색에너지연구원 등 재생에너지 전문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기존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35억원, 국비)’과 연계해 세계적인 해상풍력 개발 체계인 ‘해상풍력 계획입지’의 국내 첫 시범지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공공주도 방식의 해상풍력 개발을 추진에 있어 주민과 어민의 수용성 확보가 핵심인 만큼 고흥군은 지난해 3월 ‘4GW 규모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군민 에너지 연금 지급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 1년간 50회 이상의 해상풍력 설명회를 개최하며 주민들의 이해와 지지 확보에 힘써왔다.

이처럼 고흥군의 단지개발 사업은 민간 위주의 발전사업을 공공주도로 전환해 지역 에너지산업을 선도하고, 해상풍력 산업을 지역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함

으로써 농어업 중심의 낙후된 산업 구조를 개선하는 등 지역 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히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 기업을 에너지 분야 앵커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 산단 내 RE100 기업 유치를 통해 고용 창출과 정주 인구 증가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에너지 안보 정책에 기여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은 전남 동부해역의 중심에 위치해 주요 해상풍력단지와 송전망 대부분이 경유하는 남해안 재생에너지 산업의 허브에 해당한다”며 “타 시군과도 협력을 통해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고, 광역권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보성군,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 모기·파리 등 해충 사전 차단

보성군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12개 읍·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절기 방역소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모기, 파리 등 해충의 발생 밀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9월 말까지 방역활동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원 다발 지역과 위생 취약지역을 우선순위로 집중 관리에 나선다.

중점 방역 지역은 등산로, 하천변, 주택가, 축사 인근 등 해충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이며 읍면별 방역 차량을 활용한 연무 소독과 휴대용 분무기 등을 통한 맞춤형 소독이 병행된다.

또 군은 방역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가 방역 장비 대여와 기피제 분사기 관리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보성군 보건소 관계자는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보성=양종수 기자

장흥군, 한우 품질 개량 추진 우수 수정란 이식으로 한우 생산

전라남도 장흥군은 16일 우수 유전자를 보유한 한우의 수정란을 이식해 지역 한우 품질 개량을 촉진하고 농가 경쟁력 제고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체외 난자채취 방식으로 우수한 난자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고자 2017년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와 기술협약을 하고 2020년부터 수정란을 공급받고 있다.

한우 280두 이식을 목표로 전남도와 함께 ‘초우량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농가 번식우 30두 이상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읍·면에서 신청받고 있다.

한우 개량사업을 통해 지난해 장흥군 장평면 축산농가 보우는 전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 미경산우 부문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한우의 평균 출하 금액도 1050만원으로 일반 축산농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김성 군수는 “장흥한우 1등급 출현율은 82.2%로 전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 추진으로 정남진 장흥한우의 10년 후 미래 유전능력 개량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2025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 자원봉사자 총 700여명 모집

전라남도 구례군은 16일부터 오는 8월 29일까지 ‘2025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 700여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철인3종경기 대회는 9월26일부터 29일까지 구례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자원봉사자는 선수 현장등록 지원, 안내소 운영지원, 읍면 거점 보급소 운영지원, 통역 지원 등 역할을 맡게 된다.

자원봉사자에게는 기본 교육과 봉사시간 인정, 단체보험 적용, 유니폼 제공, 식사 및 간식 등이 제공된다.

자원봉사 희망자는 1365 자원봉사포털 온라인 및 구례군 스포츠산업과 방문, 우편, 팩스(061-780-2199) 등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스포츠산업과(061-780-2748)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김상현 기자



여수시가 해양경찰교육원과 협력해 해양 재난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6일 여수시 공직자들이 구조장비 투척술을 배우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 전 직원 대상 해양 재난 대응 교육 진행

전라남도 여수시는 해양경찰교육원과 협력해 오는 12월까지 전 직원 대상으로 해양 재난 대응 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기명 여수시장이 주간업무계획 보고회를 통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먼저 해양 관련 사고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종 해양 재난 발생 시

실효성 있는 대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교육은 해양경찰교육원 내 선박안전실 습장과 파출소실습장 등 2곳에서 매월 1~2회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박 비상탈출 훈련, 연안구조 및 구조장비 투척술, 해양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절차 등이 포함돼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장흥 9경·9미·9품’ 재선정… 지역 관광 활성화

특산품 브랜드 등 재정비

전라남도 장흥군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과 먹거리, 특산품 브랜드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장흥 9경·9미·9품’을 재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선정은 장흥의 변화된 관광 트렌드와 주민·관광객 의견을 반영해 군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장흥군은 올해 초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2월까지 군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2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후보군을 선정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분야와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경·9미·9품을 최종 선정했다.

‘장흥 9경’으로는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천관산,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장흥 126타워, 보림사, 해동사, 선학동마을, 소등섬, 하늘빛수목정원이 선정됐으며 ‘장흥 9미’는 한우삼합(한우+표고+키조개), 된장물회, 키조개요리, 매생이요리, 굴구이, 바지락회무침, 갑오징어회&떡볶, 낙지&주꾸미요리, 갯장어 사부

사부가 선정됐다.

‘장흥 9품’으로는 장흥 한우육포, 장흥 표고버섯, 장흥 무산감, 청태전(전통 발효차), 키조개, 매생이, 편백제품, 친환경 쌀 아리미, 장흥 향토주(하늘수, 술도깨비)가 최종 선정됐다.

김성 장흥군수는 “9경·9미·9품은 장흥의 관광, 먹거리, 산업을 대표하는 핵심 콘텐츠”라며 “이번 재선정을 통해 장흥군만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흥=김전환 기자

‘40초로 즐기는 여수’ 숏폼 공모 내달 28일부터 8월14일까지 접수

전라남도 여수시는 365개 섬을 비롯한 지역의 매력을 담은 영상 콘텐츠 발굴을 위해 ‘40초로 즐기는 여수’ 짧은 영상(숏폼) 공모전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최신 추세(트렌드)를 반영해 여수의 섬·역사·문화·관광 등을 40초 이내 세로 규격 영상에 담으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여수시 또는 소통24 누리집을 참고해 제작한 영상과 관련 서류를 오는 7월28일부터 8월14일까지 전자우편(yeosu_city@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출품된 작품은 창의성, 완성도, 활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250만원) 1점, 우수상(100만원) 2점, 장려상(50만원) 2점, 노력상(섬박람회 ‘다섬이’ 캐릭터 인형) 5점을 선정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여수시 공식 누리 소통망(SNS) ‘여수이야기’에 게시돼 각종 홍보 영상으로 활용된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홍보담당관 뉴미디어홍보팀(061-659-30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중요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의 특성을 살려 여수의 섬과 문화를 확실히 각인할 수 있는 참신한 작품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여수=이경기 기자